

(주)모비젠, 수원시청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수주

- ◆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및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민소통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참여
- ◆ 자사 빅데이터 솔루션인 '아이리스(IRIS)' 기반의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기반의 기업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전문 기업 (주)모비젠(대표 김태수, 고필주)은 수원시의 '스마트 시민소통 및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본 사업은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외의 공공 데이터 900여개를 전면 개방해 시민과의 시정소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공공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정보 접근과 활용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이 주인인 시정 구현, 시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한 시정 정책 결정,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 분야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14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 (주)모비젠은 자사의 빅데이터 솔루션 '아이리스(IRIS)'를 통해 검증된 실전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참여한다. 주요 사업 범위는 ▲ 메타데이터, 데이터 맵 등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 데이터 수집, 연계, 저장, 분석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시정데이터 활용 체계 확립을 위한 데이터 개방 포털 구축 ▲데이터 분석 시각화를 통한 스마트 시민소통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을 포함한다.

특히,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국제표준 기반 오픈

데이터 유통 플랫폼 확장 기술'을 적용해 오픈소스 기반의 표준화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모비젠과 ETRI가 공동으로 연구한 이 기술은 오픈 소스 플랫폼 CKAN(Comprehensive Knowledge Archive Network)을 기반으로 국제표준인 DCAT(Data Catalog Vocabulary) 규격에 따라 표현된 데이터를 원활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확장한 기술로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스토어' 사이트에 적용해 검증된 바 있다.

본 사업의 주관기관인 수원시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중앙기관과의 데이터 연계의 어려움, 데이터 중복성 문제, 시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자료 검색 및 활용에 대한 불편함 등 그 동안 제기되어온 공공 데이터 활용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으로 스마트 행정과 시민 중심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본 사업의 기술 총괄 책임자인 (주)모비젠 김형근 CTO는 "이번 사업에서 다종의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여러 형태의 공공 데이터를 수집해 공공기관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라며 "모비젠이 다년간 축적해 온 데이터 표준화 관리 및 연계기술과 더불어 오픈 데이터 서비스 분야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의 품질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별첨]-회사소개

㈜모비젠의 역사는 2000년 회사 설립 당시, 국내 최초로 이동통신사의 대용량 과금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신서비스 고객의 체감 품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시작된다.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생소했던 당시에,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하루에 수 천만 건씩 생성되는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고, 10 여건의 관련 특허를 포함하여 이를 꾸준히 발전시킴으로써, 기업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다.

㈜모비젠은 누구나 개발자의 도움 없이 빅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탐지 및 예측 수요에 시기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빅데이터/AI 분야와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 환경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OSS(Operation Support System, 운용 지원 시스템)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인 솔루션을 공급함으로써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주)모비젠이 2008년에 한국 최초로 독자 개발하여 출시한 빅데이터 플랫폼인 '아이리스(IRIS)'는 일일 수천억 건씩 발생하는 빅데이터의 수집, 가공, 저장, 탐색, 분석 및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토털 서비스를 성능 저하 없이 제공함으로써, 페타바이트(PB) 수준의 빅데이터를 보유한 고객들이 단시간내에 인사이트를 도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주)모비젠은 SK텔레콤, LGU+ 등 통신 사업자를 비롯하여 SK 브로드밴드, SK 하이닉스, 코레일, 삼성 화재, 금융보안원, 전력연구원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고객들의 비즈니스 개선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본인정보 활용(MyData) 사업 등 정부 주도의 빅데이터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사업문의] 모비젠 사업총괄 이세연 부사장 010-4114-9360 sylee@mobigen.com

[PR] 지란지교시큐리티 전략기획부 박지선 대리 010-2766-0657 js_pr@jiran.com